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9호 / 2026년 08월 07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회사는 생산부터, 노동조합은 사람 먼저

- 휴가는 끝나가지만, 중대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생산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록만 설치하면, 끝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회사는 인터록과 LOTO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전장치 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보위 안전 첫 번째가 인터록입니다. 하지만, 인터록 하나 설치했다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설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현장, 외주에 맡겨진 보전 업무, 안전을 확인해야 할 관리자까지 생산라인에 투입된 현실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인터록이나 센서는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말합니다. 인터록만 설치하고, 사람은 그대로라면 또 다른 사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왜 산보위에서 끝내야 할까요?

중대재해는 회사가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입니다. 이번 산보위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가? 사람은 충분한가? 외주작업은 안전한가? 관리자는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6가지

- **적정인력을 포함한 재발방지 없이, 산보위는 끝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긴급 산보위의 요구입니다. 총 6가지 요구 중 인터록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요구 전체가 재발방지 대책이고, 정리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인터록만 설치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와 생산 재개를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합니다.

- 산보위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요구사항 -

1. 전사 자동화 설비 인터록 및 전원차단 표지 전수조사
- 2. 전사 직간접 부문 적정인원 산정 및 정규직 채용계획 수립**
3. 중대재해 비상연락 및 노사합동조사 규정 전사 표준화
4. 전사 산업재해 트라우마 치료 및 심리지원 규정 제정
5. 전사 외주작업 안전관리수칙 제정 및 절차 준수
- 6. 중간관리자 생산라인 투입금지**

■ 이제 회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재발방지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회사의 몫입니다. 노동조합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생산만 서두르다 또 다른 갈등을 만들 것인지.

□ 이번 중대재해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생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인터록을 설치하십시오. 사람도 충원하십시오. 산보위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결정하십시오. 그 때까지 만도지부는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중대재해 대응, 대책위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만도지부와 금속노조 노안실이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지역 단체와 시민 연대가 결합해 대책위로 전환되었고 노동부 압박과 정당, 국회까지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